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신규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중복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폴리에스터의 원료인 PTA가 그렇고, PTA의 원료로 사용되는 P-X가 그러하며, 최근에는 폴리우레탄 제조에 투입되는 PO를 놓고 신규참여 경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시장을 겨냥해 올레핀 및 폴리올레핀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해 상당한 재미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중동 국가들이 코스트가 낮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대규모 신증설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동이 에탄 베이스 석유화학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이 세일가스를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로 채용하면서 아로마틱 붐이 일어났으나 역시 중국시장이 침체되면서 고전하고 있으며, 톤당 1200달러대로 그런대로 양호한 벤젠을 제외하고는 적자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톨루엔이나 자일렌 모두 톤당 1200달러 수준에서 1000달러 안팎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SKK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PO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무작정 너무나도 뛰어드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증설을 추진한 결과가 대부분 무리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PTA 생산기업들은 국내 폴리에스터섬유 및 PET필름, PET병 시장이 모두 일정수준 한계가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중국수출을 과신한 나머지 경쟁적으로 증설에 뛰어들어 극심한 공급과잉을 유발했고 2012년 하반기 이후 적자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PTA 생산능력을 급격히 확대한 영향도 있지만 생산능력을 확대해 고정코스트를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계산이 근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P-X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PTA 생산능력을 급격히 확대하면서도 P-X 신증설에 적극 나서지 않고 P-X 투자에 대한 중국인들의 저항이 거센 것은 사실이지만 정유 및 석유화학기업들이 뒤엉켜 경쟁적으로 대규모 플랜트를 건설함으로써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물론, 중국 폴리에스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PTA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성을 전적으로 중국시장의 흐름에 맞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사업을 헤쳐나갈 수 없고 상대방에게 의존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비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O도 PTA나 P-X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SKK가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4곳이 추가로 뛰어들어 과당경쟁이 불가피해지면 날개 없는 새와 마찬가지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GDP의 5%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중복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중복투자, 절대 경계해야...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